

Research Center

한투의 아침

■ Today's Focus

글로벌 IT: 엇갈리는 FAANG

■ 기업/산업분석

KMH, 호텔·레저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파라다이스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롯데제과 외 5개 종목

■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투자전략 | 박소연
해외주식 | 백찬규
글로벌기업 | 권윤구

시황분석 | 김대준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중국기업 | 이동연

계량분석 | 안혁
중국시장 | 최설화
해외채권 | 안재균

스몰캡전략 | 정훈석
베트남시장 | 이소연
경제분석 | 박정우

유동성분석 | 송승연
글로벌ETF | 배호진
채권분석 | 오창섭

자산배분전략 | 정현종
글로벌기업 | 정희석
크레딧분석 | 김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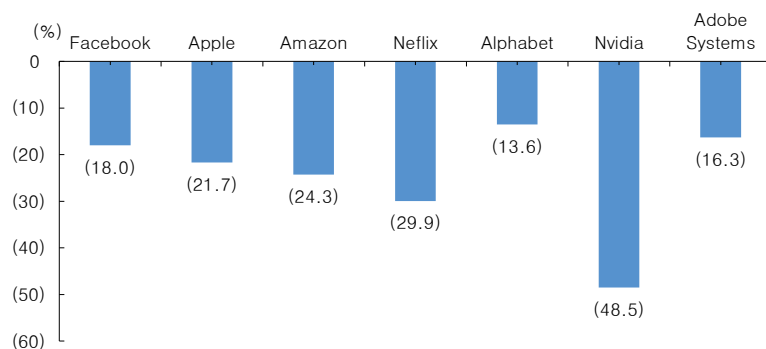
글로벌 IT: 엇갈리는 FAANG

FAANG 기업 주가 급락, Apple과 Facebook의 산업 영향력 약화 예상
Amazon 등 클라우드 사업자의 경쟁력과 산업 지배력은 더욱 강해질 전망
단기적으로 글로벌 IT업종 조심, 하지만 선두 인터넷 기업은 강한 확신 유지

FAANG으로 대표되는 IT 대장주 주가 급락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을 흐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의 붕괴’로 표현할 수 있다. FAANG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주요 IT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기업의 주가가 지난 9월말 이후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9월말 이후 Facebook 18%, Apple 22%, Amazon 24%, Netflix 30%, Alphabet(Google) 14% 하락했다. 또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대표주였던 Nvidia와 Adobe Systems 또한 동일 기준으로 각각 49%, 16% 급락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메가트렌드에서 쉽없이 상승할 것 같았던 성장주에 제동이 걸렸음은 분명하다.

[그림 1] 주요 IT 대표 기업 9월말 이후 주가 수익률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우리가 놓쳤던 것: 한꺼번에 몰려온 악재

우리 한국투자증권 글로벌팀은 글로벌 주요 선두 IT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2016년부터 계속 유지했다.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 단기 조정 구간은 있었지만 산업 내 기술경쟁력 강화 흐름이 과거와 비교해 비약적이고, 선두기업의 실적모멘텀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 주가밸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우리의 전망은 최근 두 달 사이 틀렸다. 비록, IT하드웨어 종목에 대해 조심스러운 시각을 가졌었지만 조정 이후 단기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던 주요 소프트웨어 종목마저 크게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망이 어긋난 이유는 1) 매크로 환경의 변화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가팔랐고, 미중 무역분쟁의 악영향이 생각보다 커지는 상황이다. 2) 주요 IT기업의 실적 모멘텀도 예상보다 강하지 못했다. 주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기업들 모두 여전히 성장성은 높지만,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의 변화 속에서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 부품산업 등 과열 시장의 수요 정상화의 반작용도 다소 과소평가했다. 3) IT 수요증가에 대한 확신이 낮아지는 속에서 공급증가, 규제강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 약세장 속에서 우리가 내린 판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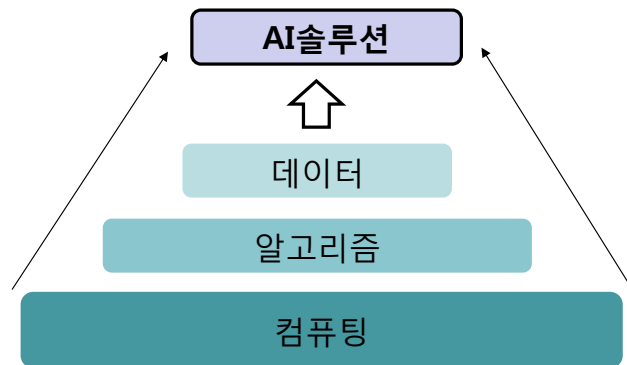
애플과 페이스북, 산업 주도권 회복 쉽지 않아

이번 급락장을 거치며 우리가 내린 첫 번째 판단은 FAANG의 대표 종목인 Apple과 Facebook의 산업 주도권과 실적 모멘텀 회복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지난 실적발표를 통해 두 기업 모두에서 외형성장(애플은 하드웨어 판매, 페이스북은 가입자 증가 추이)이 뚜렷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했다.

Apple의 하드웨어 사업 부진은 디바이스 영역에서의 혁신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타개할 전략도 부재해 보인다. 현 시점에서 IT기업이 디바이스 혹은 서비스 영역에서 확보해야 하는 경쟁력은 궁극적으로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로 이어지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로 판단된다. 시장이 기대하는 다양한 4차산업 분야(자율주행차, 스마트 생태계, 클라우드 서비스 등)는 강력한 데이터 분석능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플에게는 컴퓨팅 능력에 기반한 고도의 데이터 분석 능력 확보의 가시성은 낮아 보인다.

AI사업을 준비하는 주요 IT기업의 전략은 두 가지로 나뉜다. Amazon, Microsoft, Google 등 인터넷 기업들은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컴퓨팅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Nvidia, Intel, Arm Holdings 등 반도체 진영은 칩 자체의 퍼포먼스를 극대화함을 통한 엣지(edge) 기반의 컴퓨팅 능력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Apple은 전세계적인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가지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자체 반도체 기술을 Nvidia 수준으로 끌어올리지도 못했다. 물론, Apple은 AI의 핵심 요소 중 데이터(iOS 생태계)와 알고리즘은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컴퓨팅 능력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Apple의 중장기적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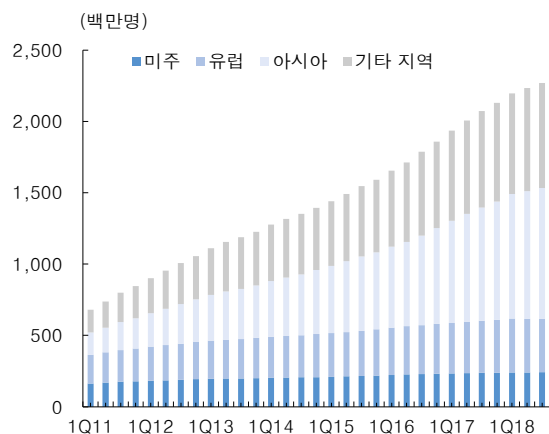
[그림 2] AI의 핵심 3요소: Apple,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있지만 컴퓨팅 능력이 없다



자료: 각 사,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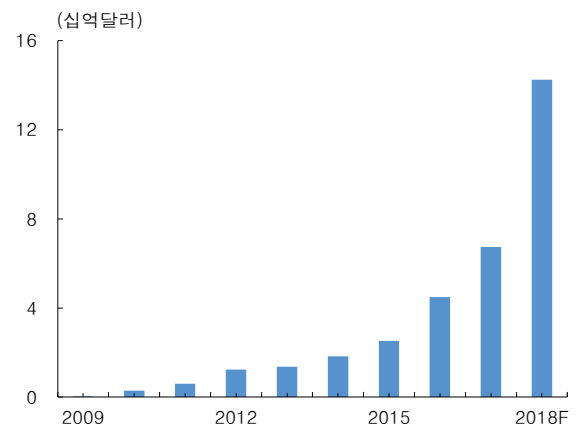
Facebook의 경쟁력 둔화도 Apple과 유사한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로서 핵심 경쟁력인 데이터 처리/분석 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MAU(Monthly Active Users)가 2017년 20억명을 넘어서는 등 가입자가 단기에 급격히 증가(그림 3)했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플랫폼의 데이터센터 투자는 경쟁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대비 부족했다. 가입자 대비 데이터 처리/분석 능력이 떨어지며 부적절한 게시물(피드) 확대, 지나친 광고, 데이터 유출 등 플랫폼으로서의 매력도가 훼손됐다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SNS플랫폼으로서의 매력 하락은 가입자 증가세 둔화로 빠르게 이어졌고, 최근 Facebook이 위기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최근 동사가 보이고 있는 데이터센터 투자 강화는 뒤늦게나마 데이터 처리/분석 능력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림 3] Facebook MAU(Monthly Active Users)



자료: Facebook, 한국투자증권

[그림 4] Facebook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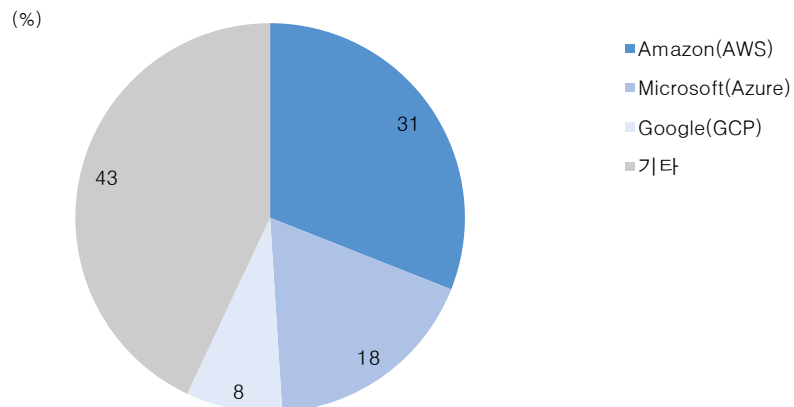


자료: Facebook, 한국투자증권

선두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긍정적 시각 변함없어

최근 우려에도 Amazon, Microsoft, Google 등 선두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변함없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유를 찾는다. 우선, 해당 기업들이 지닌 데이터분석 능력이다. 클라우드 선두 사업자들로 세 기업 모두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Apple, Facebook이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반대의 이유로 동 기업들의 주도권은 강화되는 것이다. 투자둔화 우려는 제기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데이터센터 투자는 미국의 선두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우수한 데이터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인터넷광고 등 기존 사업과 자율주행, 스마트 플랫폼 등 미래 사업의 성장 가시성은 여전히 높다.

[그림 5] 글로벌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 점유율



주: 2Q18 기준, 자료: Canalys estimates,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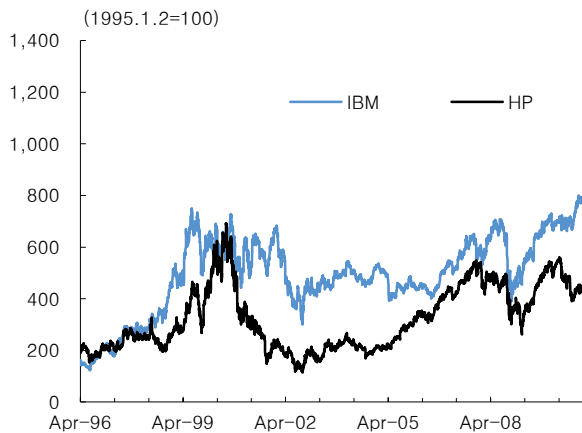
특히, 선두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확신을 유지하는 이유는 과거 IT산업에서 관찰됐던 손바꿈 현상이 이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손바꿈 현상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느 산업이 고성장하면서 관련 서플라이체인(supply-chain)은 높은 밸류에이션 평가와 함께 주가의 랠리가 나타난다. 2) 하지만, 해당 산업의 규모가 커져 성장성이 둔화되면 서플라이체인내 대표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빠르게 de-rating되면서 기업가치가 떨어진다. 3) 대신, 해당 산업이 고성장하면서 구축해 놓은 기술환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한다. 4) 이러한 신산업은 기존 성장산업과는 대조적으로 빠르게 고성장하며 높은 밸류에이션과 주가 상승의 흐름을 이어 받는다.

과거 IT시장의 손바꿈 현상은 PC와 인터넷, 스마트폰과 모바일 게임 산업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PC산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고성장했지만 90년대 후반 이후 성장성이 둔화됐다. 하지만, PC 중심으로 구축된 IT환경을 기반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급속도로 인터넷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동 기간 동안 우리는 IBM, Dell, HP 등 PC 사업자들이 부여 받았던 높은 기업가치가 Google, Yahoo(국내의 경우 네이버) 등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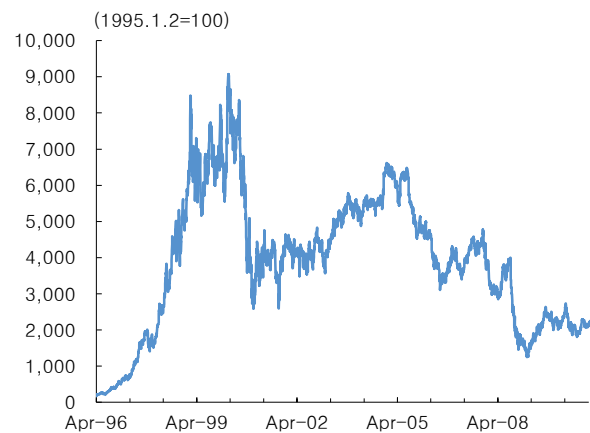
2010년대 초중반 모바일 산업에서도 유사한 현상은 관찰됐다.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2012~2013년 스마트폰 서플라이체인 기업의 시장가치는 빠르게 상승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며 서플라이체인 대표기업의 주가 모멘텀은 둔화되기 시작했다. 대신, 스마트폰이 형성해 놓은 생태계를 기반으로 모바일 게임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스마트폰 부품업체들이 주목을 받던 시점과 모바일 게임기업의 모멘텀이 발생했던 시점을 비교해 보면 이와 같은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림 6] IBM, HP의 과거 상대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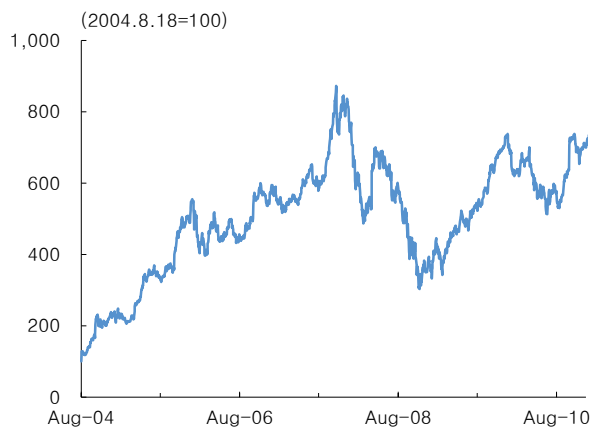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7] Dell의 과거 상대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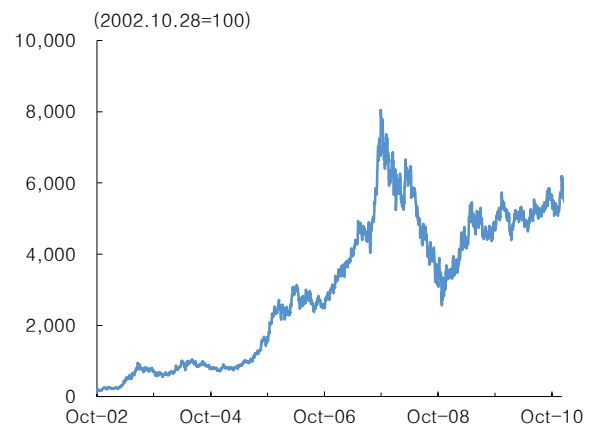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8] 구글 과거 상대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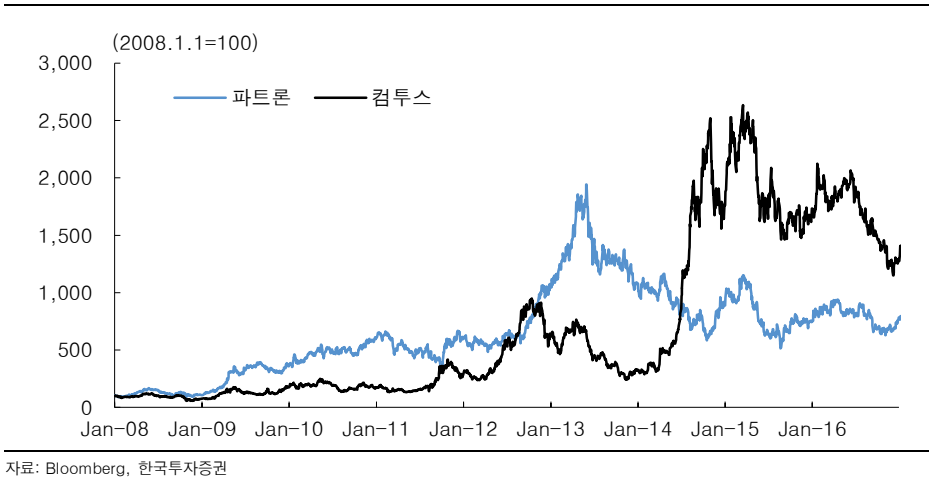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9] 네이버 과거 상대주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대표 스마트폰 부품(파트론) vs. 모바일 게임(컴투스) 기업 상대주가 비교



미국의 인터넷 기업을 둘러싼 우려는 과거 여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성장성 둔화이다. 주력 전자상거래, 인터넷 광고 사업을 비롯 클라우드서비스 등 고성장에 오던 사업의 매출 증가율이 떨어지는 모습이 최근 관찰됐다. 이에 시장은 반응해 지난 10월부터 주요 인터넷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de-rating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와는 달리 이번 사이클에서는 손바꿈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미국의 주요 인터넷 기업이 구축해 놓은 클라우드컴퓨팅(데이터센터) 환경을 이용해 새로운 산업을 개척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영 역시 미국의 인터넷 기업이기 때문이다. AI컴퓨팅을 기반으로 다양한 4차 산업사업(ex. 자율주행차, 스마트 플랫폼, 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Amazon, Microsoft, Google 등이다. 동 기업들이 IaaS(인프라 영역), PaaS(플랫폼 영역), SaaS(소프트웨어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직접 혹은 파트너십을 통해) 클라우드 사업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사업 영역 확장과 성장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단기적인 부침을 있을 수 있지만 선두 인터넷 기업의 구조적인 성장 가시성은 여전히 높다.

선두 IT기업에 대한 긍정적 시각, 다만 비바람은 일단 피하자

최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Amazon, Microsoft, Google에 대해 강한 확신과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반면, FAANG의 대표 기업이었던 Facebook, Apple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업종 투자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IT산업에 단기적으로 공격적인 매수전략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산업을 둘러싼 매크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업종 대표기업인 Apple과 관련 사업자의 밸류에이션 de-rating 과정 속에서 시장의センチメント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완벽한 저점 매수보다 회복 추세를 확인한 이후 적극성을 가지는 전략을 추천한다. 물론, 중장기 투자자라면 Amazon, Microsoft, Alphabet(Google) 등 선두 인터넷 기업 투자는 지금도 유효하다.

〈표 2〉 한국투자증권 글로벌 IT HW/SW업종 관심 종목

종목(티커)	
최선호주	Amazon.com(AMZN US), Microsoft(MSFT US), Alphabet(GOOG US), Softbank Group(9984 JP), Xilinx(XLNK US)
차선호주	VMware(VMW US), Dell Technologies(DVMT US), Cisco Systems(CSCO US), Nvidia(NVDA US), Citrix Systems(CTXS US), Adobe Systems(ADBE US), Workday(WDAY US), Arista Networks(ANET US), Nutanix(NTNX US), Alibaba Group(BABA US), Cadence Design Systems(CDNS US), Splunk(SPLK US), Cloudera(CLDR US)

자료: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KMH(122450)

골프장을 경영한다

지속적인 현금창출력 기반 M&A로 사업 확장

국내 최대의 방송 송출 사업자인 KMH는 본업의 지속적인 현금 흐름에 기반한 M&A를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2012년 아시아경제와 2013년 팍스넷을 인수하면서 방송미디어 사업을 확장했다. 아시아경제는 2015년 코스닥에 상장했고, 팍스넷은 2016년 코스닥 상장 후 2018년 8월 매각했다. 2016년부터는 대중제 골프장 인수를 통한 레저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2018년 3분기 누적 기준 부문별 매출액 비중은 방송미디어 39%, 레저 25%, 제조 및 기타 36%이며, 영업이익 비중은 방송미디어 40%, 레저 52%, 제조 및 기타 8%이다.

대중제 골프장, 매력적인 산업

국내 대중제 골프장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산업이다. 젊은층, 여성, 일반 직업군의 유입으로 골프 인구가 증가하며 대중제 골프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매출액, 골프장수, 이용객 모두 대중제가 회원제를 추월했으며, 부실한 회원제의 대중제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 2017년 기준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수는 1,838만명으로 지난 7년간 연평균 14% 증가했다. 대중제 골프장의 매출액 합계는 2.2조원으로 지난 7년간 연평균 15%가 증가했다. 평균 영업이익률은 대중제 31%, 회원제 2%이다. 영업이익률 상위 10개 대중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50%를 넘는다.

KMH의 골프장 사업 돋보이는 성장세

KMH는 대중제 골프장을 기업경영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기록 중이다. 2016년 신라CC(여주, 27홀), 2017년 파주CC(파주, 18홀), 2018년 떼제베CC(청주, 37홀)를 인수했다. 2017년 신라CC는 매출액 184억원(+15% YoY), 영업이익 83억원(+39% YoY, 영업이익률 44.9%)을 기록했다. 파주CC의 2017년 매출액은 147억원(+16% YoY), 영업이익은 77억원(+16% YoY, 영업이익률 52.6%)이었다. 신라CC가 위탁경영하는 떼제베CC는 지난 5월 대중제 전환 후 8월 회생절차를 종료했고, 상반기 누적 영업손익이 흑자전환했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115	17	9	475	11.4	24	13.2	4.1	1.4	11.6	0.0
2015A	99	19	9	466	(2.0)	25	13.7	4.0	1.3	10.1	0.0
2016A	155	27	24	1,191	155.7	36	4.8	7.0	0.9	21.8	0.0
2017A	205	36	28	1,359	14.1	48	4.8	7.1	0.9	20.6	0.0
2018F	195	39	49	2,298	69.1	52	3.4	8.3	0.8	28.4	0.0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Not Rated

Value	Growth	Turn around	Issu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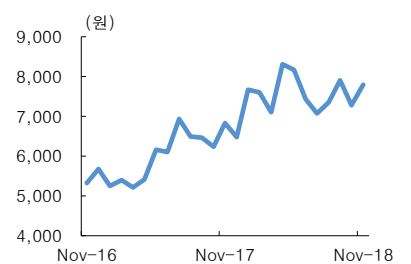
Stock Data

KOSPI(11/21)	2,077
주가(11/21)	7,790
시가총액(십억원)	170
발행주식수(백만)	22
52주 최고/최저(원)	8,430/6,353
일평균거래대금(6개월, 백만원)	709
유동주식비율/외국인지분율(%)	67.0/3.7
주요주주(%)	최상주 외 8 인 33.0
	KB자산운용 10.9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0.9)	2.5	12.9
KOSDAQ 대비(%p)	5.2	22.8	24.8

주가추이



자료: WISEfn

이윤상

ysanglee@truefriend.com

대중제 골프장에 힘을 쏟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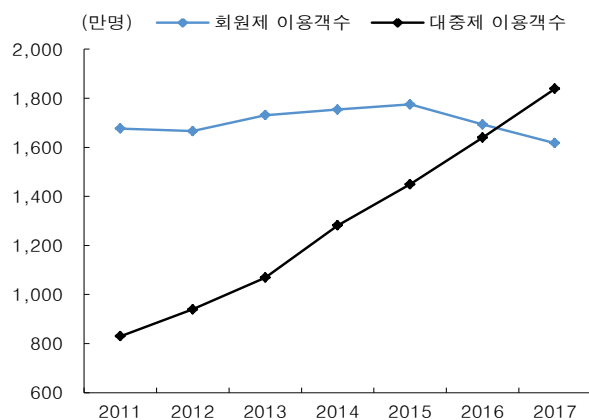
공모주 수요 위축으로 신라레저의 상장이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이익 개선세와 valuation 매력이 여전하다. KMH는 신라CC의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중제 골프장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KMH의 방송미디어 부문에서 지속적인 현금 창출이 이루어지고, 3분기 기준 현금성자산만 603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주간만 운영되던 신라CC는 순차적인 라이트 설치 작업을 계획 중으로 27홀 전체 라이트 설치시 약 12홀의 증설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수익성이 낮은 대중제 골프장들의 위탁경영 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키워갈 계획이다. 3분기부터 떼제베 CC의 실적이 본격 반영되면서 레저 부문의 매출액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표 1> KMH 운영 골프장 개요

골프장	위치	개요		2017년 실적		
		홀수	비고	매출액(억원)	영업이익(억원)	내장객수(만명)
신라 CC	여주	27 홀	대중제	184	83	12.7
파주 CC	파주	18 홀	대중제	147	77	12.1
떼제베 CC	청주	37 홀	5월 대중제 전환	93	(19)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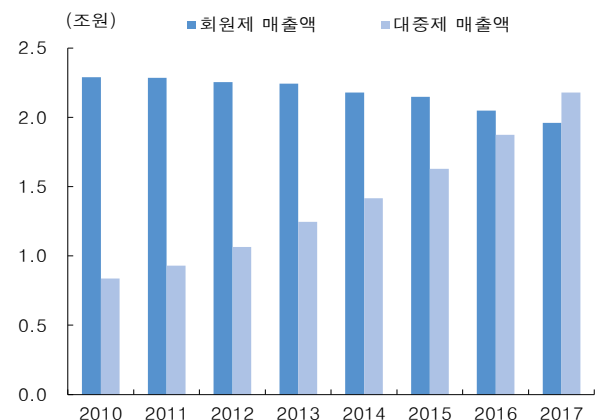
자료: KMH, 한국투자증권

[그림 1] 국내 골프장 이용객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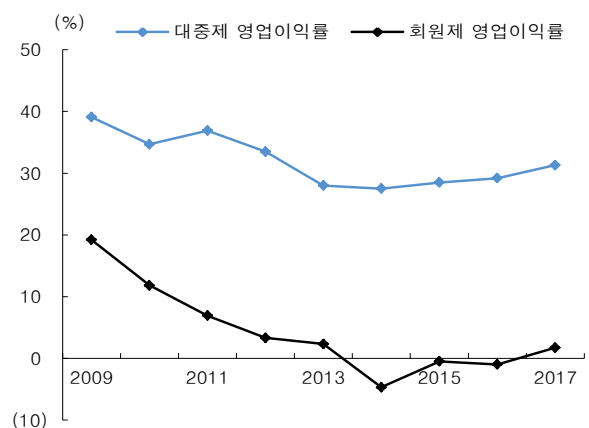
자료: 레저백서 2018, 한국투자증권

[그림 2] 국내 골프장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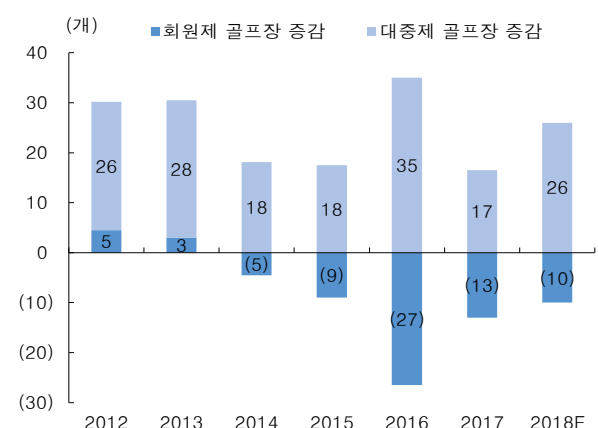
자료: 레저백서 2018, 한국투자증권

[그림 3] 국내 골프장 평균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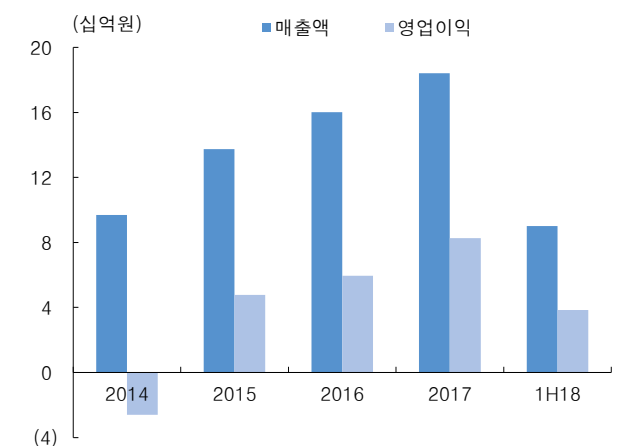
자료: 레저백서 2018, 한국투자증권

[그림 4] 국내 골프장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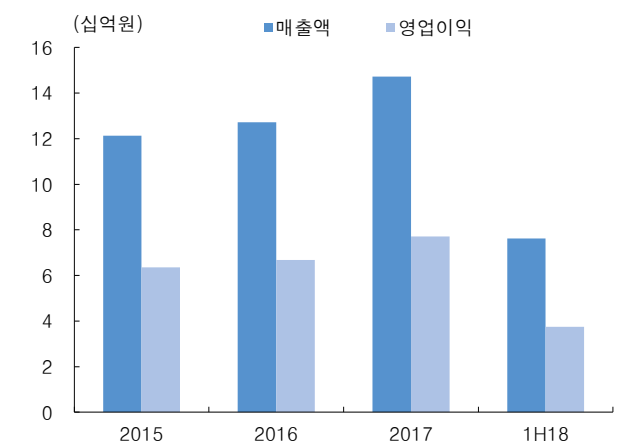
자료: 레저백서 2018,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신라CC 실적 추이(2016년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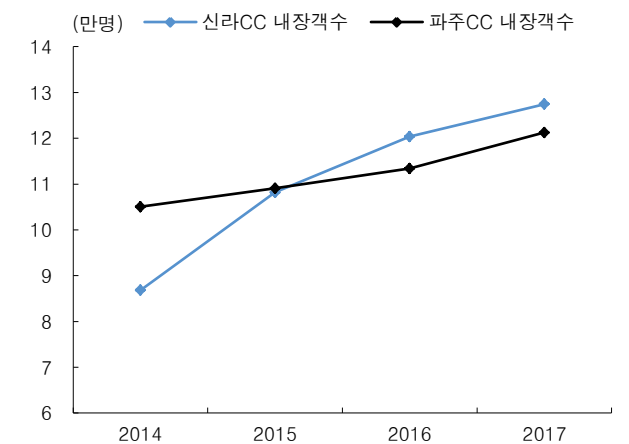
자료: KMH, 한국투자증권

[그림 6] 파주CC 실적 추이(2017년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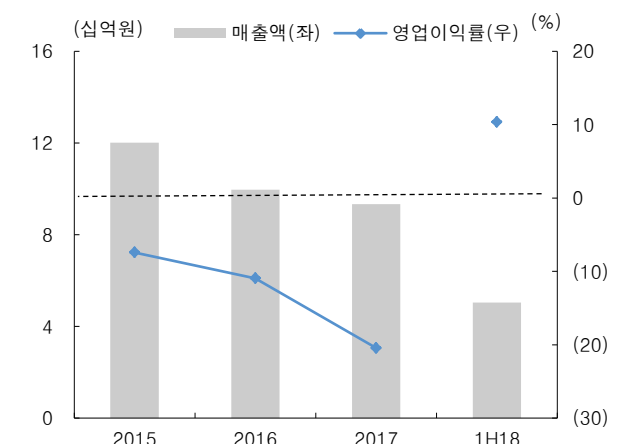
자료: KMH, 한국투자증권

[그림 7] 내장객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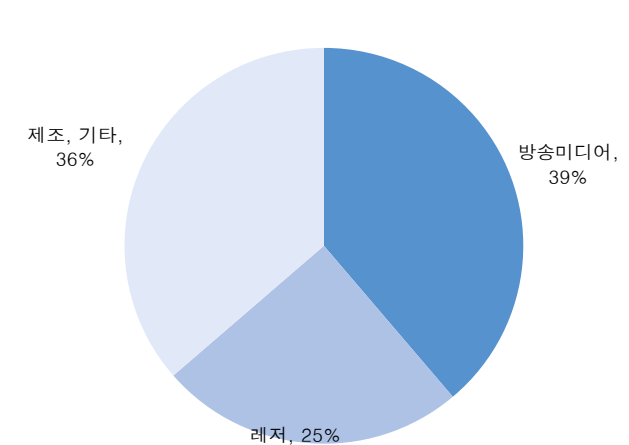
자료: KMH, 한국투자증권

[그림 8] 떼제베CC 실적 추이(2018년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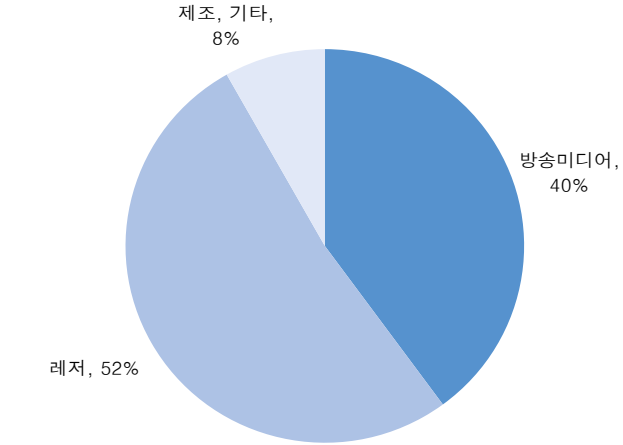
자료: KMH, 한국투자증권

[그림 9] 2018년 3분기 누적 부문별 매출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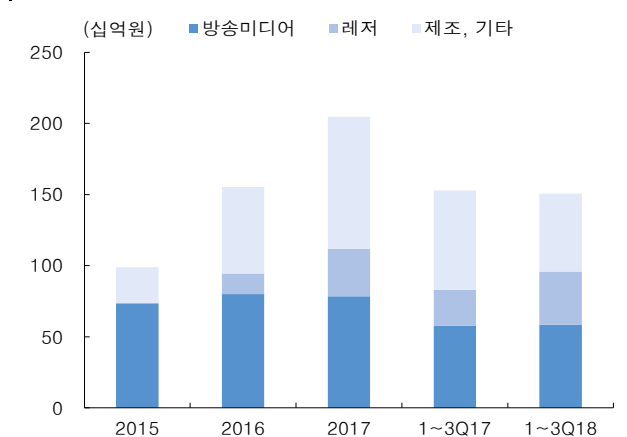
자료: KMH,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2018년 3분기 누적 부문별 영업이익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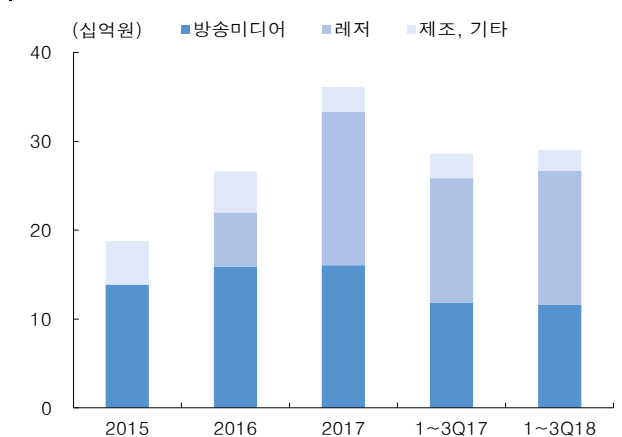
자료: KMH,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부문별 매출액 추이



자료: KMH,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부문별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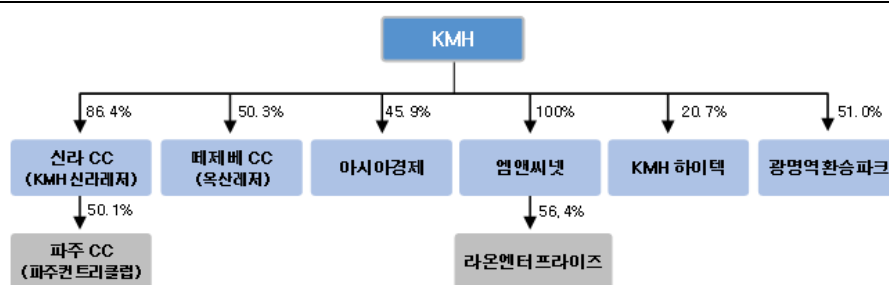
자료: KMH, 한국투자증권

〈표 2〉 주요 연혁

연도	주요 연혁
2011	코스닥 상장
2012	아시아경제 인수
2013	아시아경제의 팍스넷 인수
2014	아시아경제 TV 설립: 팍스넷 TV 사업부문 인적분할
2015	아시아경제 코스닥 상장
2016	KMH 하이텍 인수, 광명역환승센터 발기 설립, 신라 CC(신라레저) 인수
2017	신라레저의 파주 CC 인수
2018	떼제베 CC(옥산레저) 인수, 팍스넷 매각

자료: KMH, 한국투자증권

[그림 13] 주요 계열사 및 지분구조 현황



자료: KMH, 한국투자증권

기업개요 및 용어해설

2000년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방송 송출 사업자로 2011년 코스닥에 상장. 지속적인 현금창출력을 바탕으로 M&A를 통한 사업 영역 확대에 성장해옴. 2012년 아시아경제와 2013년 팍스넷을 인수하였음. 아시아경제는 2015년 코스닥에 상장시켰고, 팍스넷은 최근 매각을 완료. 2016년부터는 골프장 인수를 통한 레저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음.

재무상태표

(단위: 십억원)

	2014A	2015A	2016A	2017A	2018F
유동자산	77	103	110	145	138
현금성자산	23	49	53	75	7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8	17	28	31	30
재고자산	2	4	4	6	6
비유동자산	55	67	283	392	513
투자자산	7	16	37	22	21
유형자산	22	19	210	333	457
무형자산	20	23	26	26	25
자산총계	133	170	393	537	651
유동부채	31	27	60	50	5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8	9	21	24	23
단기차입금및단기사채	17	10	28	8	0
유동성장기부채	0	0	0	0	0
비유동부채	3	3	57	92	112
사채	0	0	0	9	19
장기차입금및금융부채	0	0	30	42	54
부채총계	35	30	117	143	162
지배주주지분	83	100	121	148	200
자본금	6	7	7	7	7
자본잉여금	24	34	32	31	31
기타자본	-0	-2	-3	-3	-3
이익잉여금	53	62	86	113	162
비지배주주지분	15	40	156	246	288
자본총계	98	139	277	394	488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2014A	2015A	2016A	2017A	2018F
영업활동현금흐름	17	16	40	33	152
당기순이익	11	11	36	43	90
유형자산감가상각비	4	3	5	7	10
무형자산상각비	3	3	4	4	4
자산부채변동	-7	-9	7	-12	7
기타	6	8	-12	-10	42
투자활동현금흐름	-8	-10	-26	-25	-131
유형자산투자	-3	-2	-10	-18	-139
유형자산매각	0	0	1	6	6
투자자산순증	1	8	2	-23	3
무형자산순증	-3	-4	-4	-4	-2
기타	-3	-13	-14	15	1
재무활동현금흐름	-4	20	-10	14	-25
자본의증가	0	35	17	10	0
차입금의순증	-3	-7	-27	4	15
배당금지급	0	0	0	0	0
기타	-1	-7	-1	-0	-40
기타현금흐름	0	0	0	-0	0
현금의증가	5	26	4	22	-4

주: K-IFRS (연결) 기준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2014A	2015A	2016A	2017A	2018F
매출액	115	99	155	205	195
매출원가	67	52	89	116	110
매출총이익	47	47	66	89	84
판매관리비	30	29	39	53	50
영업이익	17	19	27	36	39
금융수익	2	1	1	2	3
이자수익	2	1	1	2	3
금융비용	1	0	2	2	2
이자비용	1	0	2	2	2
기타영업외손익	-5	-5	14	11	10
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13	15	40	47	49
법인세비용	2	3	4	9	9
연결당기순이익	11	11	36	43	90
지배주주지분순이익	9	9	24	28	49
기타포괄이익	-0	-0	-1	0	4
총포괄이익	11	10	35	43	94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9	9	23	29	52
EBITDA	24	25	36	48	52

주요투자지표

	2014A	2015A	2016A	2017A	2018F
주당지표(원)					
EPS	475	466	1,191	1,359	2,298
BPS	4,322	5,076	6,137	7,131	9,315
DPS	0	0	0	0	0
성장성(%, YoY)					
매출증가율	28.3	(13.8)	57.2	31.8	(5.0)
영업이익증가율	39.4	9.0	41.8	35.8	6.9
순이익증가율	11.4	1.4	160.7	15.2	78.2
EPS증가율	11.4	(2.0)	155.7	14.1	69.1
EBITDA증가율	28.6	6.9	42.8	30.7	9.8
수익성(%)					
영업이익률	15.0	19.0	17.1	17.6	19.8
순이익률	7.9	9.3	15.5	13.5	25.4
EBITDA Margin	20.8	25.7	23.4	23.2	26.8
ROA	8.5	7.2	12.7	9.2	15.1
ROE	11.6	10.1	21.8	20.6	28.4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배당성향	0.0	0.0	0.0	0.0	0.0
안정성					
순차입금(십억원)	-37	-65	-14	-42	-21
차입금/자본총계비율(%)	18.6	7.0	21.0	15.6	15.7
Valuation(X)					
PER	13.2	13.7	4.8	4.8	3.4
PBR	1.4	1.3	0.9	0.9	0.8
EV/EBITDA	4.1	4.0	7.0	7.1	8.3

호텔 · 레저

10월 출입국자수 review: 외국인 방한객 증가 가속화

외국인 방한객, 일본인 급증 등으로 31% 증가

10월 외국인 방한객수(승무원수 포함)는 15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1% 증가했다. 일본인 관광객이 29만명으로 61.7% 늘었는데 기저 효과, 대형 한류 이벤트 개최, 일본 공항의 영업 정상화 등에 기인한다. 작년 10월 초에 추석 황금 연휴로 일본을 찾는 한국인 여행객이 급증해 한일 노선의 항공 좌석 가격이 크게 올라 일본인 방한객은 21% 줄어든 반면 방일 한국인 여행객은 38% 증가한 바 있다. 중국인 관광객은 47.5만명으로 37.6% 늘어 기저 효과와 국경절 특수를 누렸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국경절(10/1~7) 기간 중국인 입국자는 85,588명(+36% YoY)을 기록했다. 방한 외국인의 국적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일본 61.7%, 중국 37.6%, 미국 22.6%, 대만 22.5%, 태국 19.7%, 홍콩 11.8% 등이었다.

내국인 출국자수, 5% 늘어 증가세로 전환

10월 내국인 출국자수(승무원수 포함)는 전년동월대비 5.2% 늘어난 235만명을 기록했다. 지난 9월에 일본 자연 재해 여파로 여행 심리가 크게 위축돼 201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던 아웃바운드 여행객은 추석 효과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일본을 찾은 한국인 여행객은 8% 줄어 7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에 머물렀다. 월초 발표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일본행 패키지 송출객수는 각각 10%, 13% 줄었던 바 있다.

인바운드는 증가세 지속, 아웃바운드는 회복 나타날 것

일부 중국 온라인 여행사에서 한국행 단체상품 판매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인바운드 사업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을 필두로 2019년 외국인의 방한 시장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으로 카지노, 면세점, 호텔, 인바운드 여행 등 관련 업종의 수익 호전이 예상된다. 금년 중반 들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자연 재해 탓에 수요가 부진했던 내국인의 해외 여행 시장은 점진적으로 수요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다. 일본인, 기타VIP의 성과 확대, 중국인 VIP의 회복 구간 진입으로 드롭액이 증가하고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의 이익 개선이 예상되는 ‘파라다이스’와 3분기를 바닥으로 최악의 수요 구간을 벗어났고 4분기부터 이익 증가를 재개할 전망이다. 모두투어를 선호주로 제시한다.

비중확대(유지)

종목	투자의견	목표주가
강원랜드	중립	-
호텔신라	매수	118,000
파라다이스	매수	25,000
GKL	매수	32,000
하나투어	매수	88,000
모두투어	매수	32,500
인터파크	중립	-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중립	-

최민하

mhchoi@truefriend.com

〈표 1〉 월간 출입국자수 추이

(단위: 천명, %)

	내국인 출국자				외국인 입국자				중국인				일본인			
	전체	YoY	승무원 제외	YoY	전체	YoY	승무원 제외	YoY	전체	YoY	승무원 제외	YoY	전체	YoY	승무원 제외	YoY
2016-01	2,112	15.1	1,980	15.5	1,077	17.5	995	17.5	522	32.4	504	35.4	137	(2.0)	135	(1.9)
2016-02	1,877	29.8	1,753	31.0	1,126	7.2	1,044	7.6	546	5.7	531	8.5	144	1.3	143	1.3
2016-03	1,569	10.8	1,445	11.0	1,389	12.2	1,285	13.1	602	16.8	581	20.9	224	2.5	222	2.5
2016-04	1,637	9.4	1,515	9.8	1,470	6.1	1,354	8.4	682	6.3	658	10.9	175	13.5	173	14.4
2016-05	1,657	4.9	1,528	5.0	1,493	11.9	1,350	12.1	706	14.2	677	17.5	179	(5.1)	176	(2.6)
2016-06	1,778	29.5	1,652	31.0	1,554	107.0	1,414	126.2	759	140.7	729	175.8	180	78.0	178	82.4
2016-07	2,086	24.5	1,951	24.7	1,703	170.5	1,545	184.5	918	258.9	884	289.1	186	127.8	184	133.3
2016-08	2,064	12.5	1,934	13.0	1,664	55.6	1,509	63.9	874	70.2	840	81.9	225	51.7	223	54.2
2016-09	1,905	26.0	1,774	27.6	1,524	26.3	1,371	29.5	726	22.8	694	31.8	209	32.7	206	33.2
2016-10	1,866	7.5	1,737	8.1	1,588	14.7	1,446	18.1	681	4.7	651	11.7	227	26.0	225	26.9
2016-11	1,826	12.3	1,699	12.9	1,309	13.8	1,189	15.0	517	1.8	492	6.6	213	29.5	211	29.5
2016-12	2,007	12.6	1,875	13.3	1,343	20.3	1,230	20.8	536	15.1	510	18.3	197	23.4	195	23.4
2017-01	2,343	10.9	2,202	11.2	1,221	13.3	1,117.4	12.4	565	8.3	543	7.8	155	13.1	153	12.9
2017-02	2,231	18.9	2,105	20.1	1,252	11.2	1,151.0	10.3	591	8.1	570	7.4	185	28.1	183	28.0
2017-03	1,941	23.7	1,807	25.1	1,234	(11.2)	1,137.2	(11.5)	361	(40.0)	343	(40.9)	274	22.4	272	22.5
2017-04	2,004	22.4	1,874	23.7	1,076	(26.8)	994.4	(26.6)	228	(66.6)	215	(67.3)	166	(5.4)	163	(5.8)
2017-05	2,004	21.0	1,870	22.4	978	(34.5)	895.2	(33.7)	253	(64.1)	240	(64.6)	159	(10.8)	157	(11.1)
2017-06	2,098	18.0	1,969	19.2	992	(36.2)	916.2	(35.2)	255	(66.4)	243	(66.7)	168	(6.9)	165	(7.1)
2017-07	2,389	14.5	2,243	15.0	1,009	(40.8)	927.0	(40.0)	281	(69.3)	268	(69.7)	171	(8.4)	168	(8.6)
2017-08	2,385	15.6	2,230	15.3	1,104	(33.7)	1,022.3	(32.2)	339	(61.2)	326	(61.1)	227	0.6	224	0.5
2017-09	2,237	17.4	2,100	18.3	1,079	(29.2)	1,002.1	(26.9)	319	(56.1)	307	(55.8)	220	5.4	217	5.3
2017-10	2,232	19.6	2,089	20.2	1,166	(26.6)	1,089.6	(24.6)	345	(49.3)	334	(48.7)	180	(20.9)	177	(21.2)
2017-11	2,228	22.0	2,090	23.0	1,093	(16.5)	1,022.6	(14.0)	299	(42.1)	288	(41.5)	213	0.1	211	0.0
2017-12	2,405	19.8	2,259	20.5	1,134	(15.6)	1,064	(13.4)	332	(37.9)	321	(37.1)	194	(1.8)	191	(1.9)
2018-01	2,867	22.4	2,715	23.3	956.0	(21.7)	888.1	(20.5)	305	(46.0)	294	(45.9)	167	7.9	165	8.0
2018-02	2,311	3.6	2,173	3.2	1,045	(16.5)	984.3	(14.5)	345	(41.5)	336	(41.1)	168	(9.1)	166	(9.1)
2018-03	2,253	16.1	2,110	16.8	1,366	10.7	1,293	13.7	403	11.8	392	14.3	294	7.3	292	7.5
2018-04	2,230	11.3	2,088	11.4	1,332	23.8	1,248	25.5	367	60.9	355	64.8	214	29.0	211	29.7
2018-05	2,332	16.4	2,184	16.8	1,238	26.6	1,152	28.7	370	46.1	356	48.6	227	42.6	225	43.6
2018-06	2,324	10.8	2,181	10.8	1,282	29.3	1,202	31.2	380	49.0	367	51.3	235	40.2	233	40.8
2018-07	2,495	4.4	2,344	4.5	1,255	24.4	1,180	27.3	410	45.9	398	48.6	231	35.1	228	36.0
2018-08	2,520	5.6	2,364	6.0	1,392	26.1	1,313	28.4	478	40.9	465	42.6	315	38.9	313	39.8
2018-09	2,226	(0.5)	2,082	(0.8)	1,279	18.5	1,201	19.9	435	36.4	422	37.5	248	12.7	246	13.1
2018-10	2,348	5.2	2,196	5.1	1,528	31.1	1,439	32.1	475	37.6	462	38.2	290	61.7	288	62.8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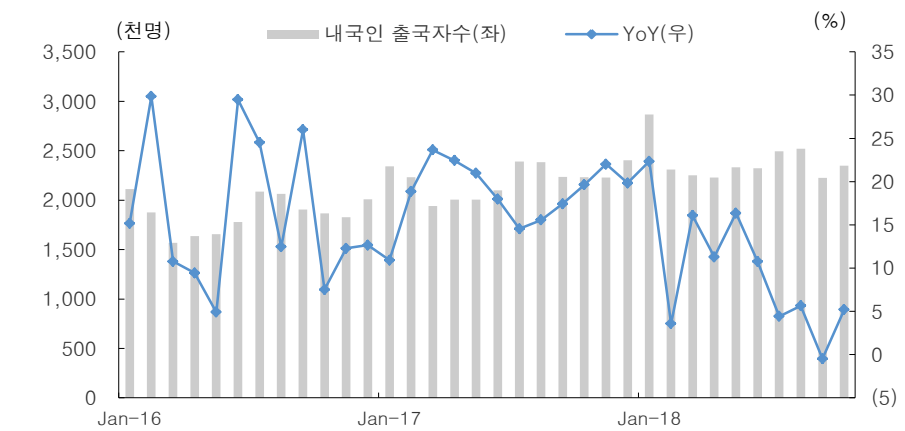
〈표 2〉 분기/연간 출입국자수 주요 가정

(단위: 천명, %)

	1Q17	2Q17	3Q17	4Q17	1Q18	2Q18	3Q18	4Q18F	2016	2017	2018F	2019F
내국인 출국자	6,515	6,106	7,011	6,864	7,430	6,886	7,241	7,188	22,383	26,496	28,745	31,325
YoY	17.2	20.4	15.8	20.5	14.1	12.8	3.3	4.7	15.9	18.4	8.5	9.0
외국인 입국자	3,706	3,046	3,191	3,393	3,368	3,852	3,925	4,045	17,242	13,336	15,164	18,652
YoY	3.2	(32.6)	(34.8)	(20.0)	(9.1)	26.5	23.0	19.2	30.3	(22.7)	13.7	23.0
중국인 입국자	1,517	736	939	977	1,054	1,117	1,323	1,365	8,068	4,169	4,839	6,892
YoY	(9.2)	(65.7)	(62.7)	(43.6)	(30.5)	51.7	40.9	39.7	34.8	(48.3)	16.1	42.4
일본인 입국자	614	493	617	587	630	676	793	685	2,298	2,311	2,784	3,119
YoY	21.5	(7.7)	(0.5)	(8.0)	2.5	37.2	28.5	16.7	25.0	0.6	20.5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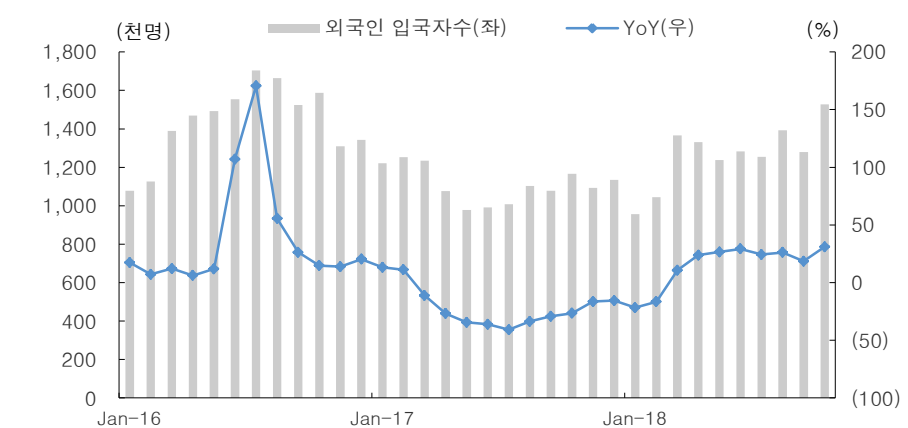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투자증권

[그림 1] 월간 내국인 출국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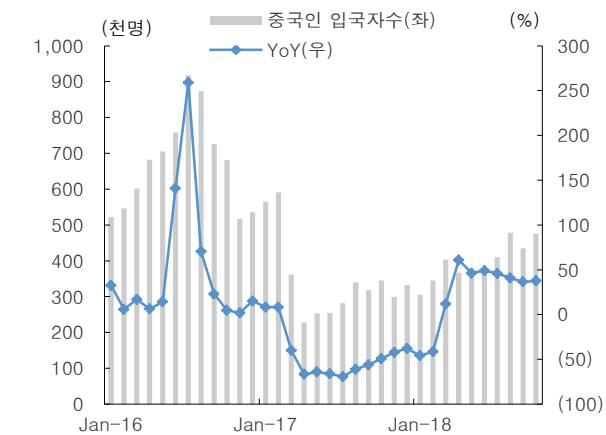
주: 승무원 포함합 인원 기준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월간 외국인 입국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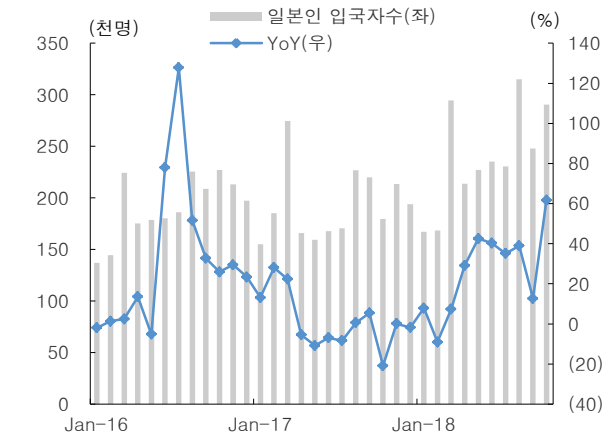
주: 승무원 포함합 인원 기준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월간 중국인 입국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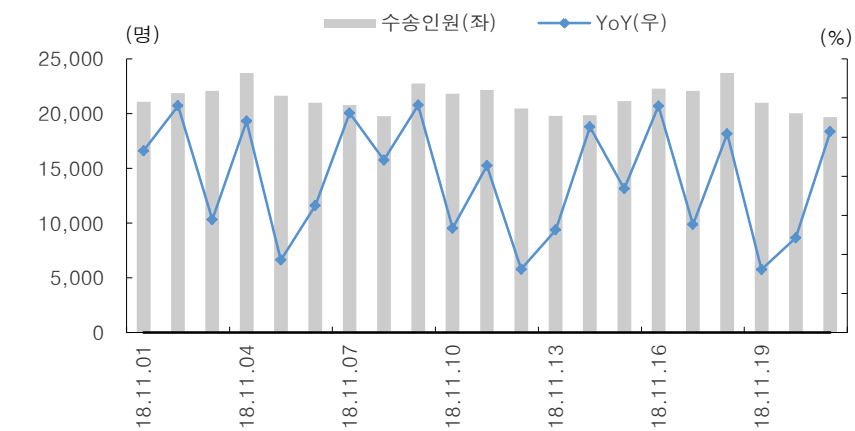
주: 승무원 포함합 인원 기준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월간 일본인 입국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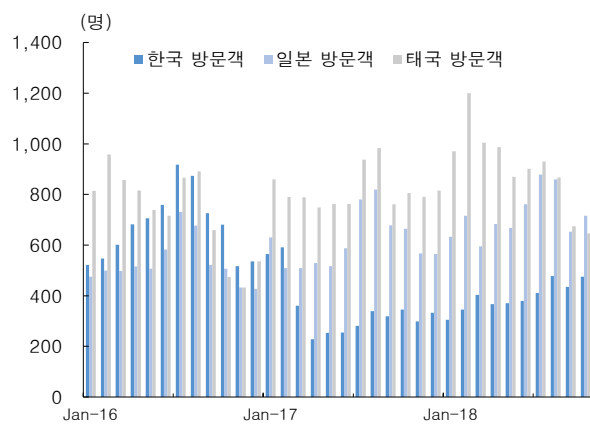


주: 승무원 포함합 인원 기준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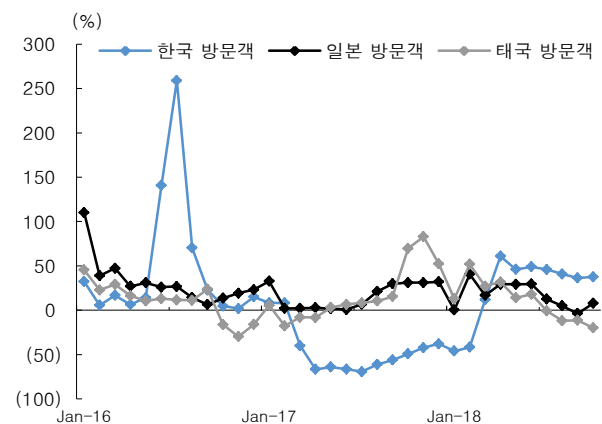
[그림 5] 중국인 항공사 수송 실적(2018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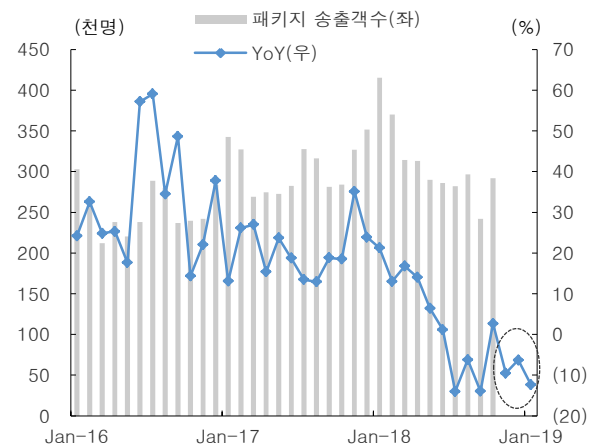
[그림 6] 중국인 관광객수 비교(한국 vs. 일본 vs. 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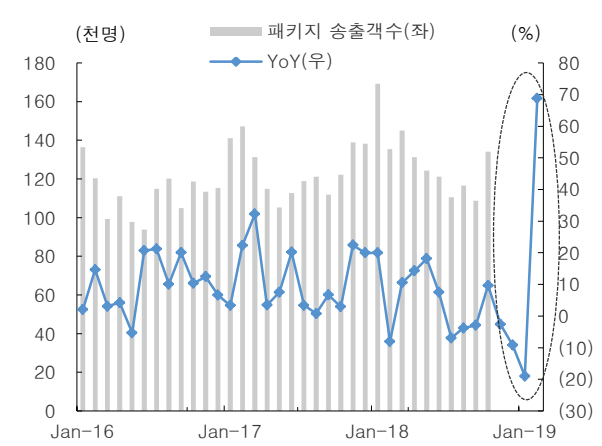
[그림 7] 중국인 관광객 증가율(한국 vs. 일본 vs. 태국)



[그림 8] 하나투어의 패키지 송출객수 증가율 및 예약률



[그림 9] 모두투어의 패키지 송출객수 증가율 및 예약률



〈표 3〉 커버리지 valuation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실적 및 Valuation										
종목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ROE (%)	EV/EBITDA (배)	DY (%)
강원랜드 (035250)	투자의견	중립	2016A	1,697	619	455	2,242	16,017	15.9	2.23	14.5	8.2	2.8
	목표주가(원)	—	2017A	1,604	531	438	2,159	17,178	16.1	2.03	13.0	8.5	2.8
	현재가 (11/22, 원)	30,600	2018F	1,479	457	353	1,743	18,025	17.6	1.70	9.8	8.3	2.8
	시가총액 (십억원)	6,546	2019F	1,546	476	401	1,980	18,953	15.5	1.61	10.6	7.6	3.3
			2020F	1,592	497	422	2,082	19,931	14.7	1.54	10.6	7.2	3.4
호텔신라 (008770)	투자의견	매수	2016A	3,715	79	28	729	19,150	66.0	2.51	4.0	14.4	0.7
	목표주가(원)	118,000	2017A	4,011	73	25	667	19,299	127.3	4.40	3.8	25.3	0.4
	현재가 (11/22, 원)	83,100	2018F	4,662	233	170	4,480	23,157	18.5	3.59	22.8	11.7	0.5
	시가총액 (십억원)	3,261	2019F	5,193	276	205	5,417	27,854	15.3	2.98	22.4	10.1	0.5
			2020F	5,693	309	229	6,064	33,115	13.7	2.51	20.6	8.9	0.6
파라다이스 (034230)	투자의견	매수	2016A	695	66	55	647	11,768	18.8	1.03	5.3	16.3	2.5
	목표주가(원)	25,000	2017A	668	(30)	(19)	(222)	11,220	NM	1.99	(1.9)	95.2	0.4
	현재가 (11/22, 원)	19,400	2018F	787	3	1	6	11,132	3,295.4	1.74	0.1	30.3	0.5
	시가총액 (십억원)	1,764	2019F	915	47	10	118	11,102	164.5	1.75	1.0	17.6	0.8
			2020F	1,064	69	28	331	11,224	58.7	1.73	2.8	15.1	1.0
GKL (114090)	투자의견	매수	2016A	548	151	114	1,849	8,386	11.1	2.44	23.5	4.4	4.9
	목표주가(원)	32,000	2017A	501	108	81	1,302	8,602	22.5	3.40	15.3	10.2	2.5
	현재가 (11/22, 원)	23,900	2018F	495	123	92	1,482	9,243	16.1	2.59	16.6	6.7	3.5
	시가총액 (십억원)	1,478	2019F	530	139	104	1,676	9,969	14.3	2.40	17.4	5.7	4.0
			2020F	568	152	115	1,858	10,767	12.9	2.22	17.9	5.0	4.4
하나투어 (039130)	투자의견	매수	2016A	596	21	8	727	19,237	90.9	3.44	4.2	15.4	2.3
	목표주가(원)	88,000	2017A	682	41	13	1,172	20,553	87.9	5.01	6.6	15.8	1.5
	현재가 (11/22, 원)	73,500	2018F	854	28	19	1,702	20,409	43.2	3.60	9.2	12.9	2.0
	시가총액 (십억원)	853	2019F	951	57	40	3,576	21,961	20.6	3.35	18.7	7.9	2.2
			2020F	1,028	69	48	4,355	24,161	16.9	3.04	20.6	6.6	2.3
모두투어 (080160)	투자의견	매수	2016A	237	20	17	953	6,983	20.3	2.77	16.5	10.6	2.1
	목표주가(원)	32,500	2017A	291	32	24	1,340	8,121	22.8	3.76	20.3	13.9	1.5
	현재가 (11/22, 원)	27,450	2018F	381	22	15	818	8,476	33.6	3.24	10.7	15.9	1.6
	시가총액 (십억원)	518	2019F	418	38	30	1,649	9,481	16.7	2.90	19.6	9.4	2.1
			2020F	450	42	34	1,876	10,672	14.6	2.57	19.6	7.8	2.3
인터파크 (108790)	투자의견	중립	2016A	466	9	2	71	4,981	143.7	2.05	1.4	14.3	1.0
	목표주가(원)	—	2017A	483	16	8	253	5,119	36.8	1.82	5.0	9.0	1.6
	현재가 (11/22, 원)	5,180	2018F	513	9	0	1	5,038	7,497.1	1.03	0.0	5.3	1.5
	시가총액 (십억원)	171	2019F	531	17	10	317	5,254	16.4	0.99	6.2	3.8	1.9
			2020F	564	21	13	401	5,526	12.9	0.94	7.4	3.1	2.5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027390)	투자의견	중립	2016A	285	(12)	(19)	NM	41,283	NM	0.82	(7.1)	61.7	0.0
	목표주가(원)	—	2017A	331	(7)	(11)	NM	40,463	NM	0.91	(4.4)	25.3	0.0
	현재가 (11/22, 원)	28,500	2018F	340	4	11	1,939	41,560	14.7	0.69	4.7	11.3	0.0
	시가총액 (십억원)	171	2019F	348	11	4	672	42,012	42.4	0.68	1.6	8.2	0.0
			2020F	374	16	8	1,364	42,652	20.9	0.67	3.2	6.8	1.8

자료: 각 사, 한국투자증권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코스피는 8일째, 코스닥은 17일째 이어진 기관 순매도세에 약세 마감

- 미국시장이 기술주 급락 진정 불구, 애플 주가 반등 실패로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및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내림세로 돌아서며 약보합선에서 거래. 특히 외국인 매도세가 8거래일 연속 이어지며 투자심리를 제약하는 모습
- 특징적인 종목으로 DMZ도로연결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코리아에스이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VC 펀드의 해외 투자 기대감 확산에 SV인베스트먼트가 초강세를 보였고, 국내 4위 규모의 VC 펀드를 보유한 아주IB투자도 강세를 보임. 이오텍은 KT&G의 전자담배 신제품 출시 소식에 급등했고 GS리테일은 간편식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86% 증가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임. 중국 환경규제로 친환경적인 CX효소의 중국 매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에 아미코젠이 초강세를 보였으며 중동 가스처리시설 수주 기대감에 삼성엔지니어링이 강세를 보임. 인터로조는 올해 3분기를 저점으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에 강세를 보였고 넵튠은 E-Sport 홍보업체 '스틸에잇' 주식 취득 결정에 강세를 보임. 반면, 미 검찰이 현대차 엔진결함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판매 역성장 우려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으며 에스에프에이는 수요부진에 따른 실적 하향 전망에 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비즈니스온(138580) ▶15,700원(+15.44%)	신규사업의 확장성 부각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의 신규 사업인 스마트MI(Smart Market Intelligence)는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정보서비스로 고객기업의 거래처 리스크 관리, 미수채권 관리, 신규 거래처 발굴 및 시장조사 등에 활용 가능하며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 - 동사는 국내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브랜드명 스마트빌)로 국내 B2B 전자세금계산서 14.5%를 점유하고 있음
에이치엘비(028300) ▶88,500원(+2.67%)	리보세라닙 위암 3차 치료제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암 3차 치료제 임상3상에 대해 국내를 포함 19개국에서 환자를 모집했으며 내년 상반기 임상3상 결과를 기반으로 NDA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 - 임상3상 환자 등록이 완료된 만큼 최종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사는 최근 리보세라닙 중국 판권을 보유한 항서제약과 공동 병용임상시험을 진행하기로 합의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콘퍼런스에서 정부가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소식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년 연간 1,000만명이 다제내성균에 의한 감염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항생제 내성 극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마이크로바이옴이 내성문제를 해결할 '키(Key)'가 될 것이라 전망이 제기됨 - 셀바이오텍(049960, +7.80%), 제노포커스(187420, +1.83%)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 용
한진(002320) ▶48,250(+8.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환원정책 강화 기대감에 사흘 연속 상승하며 52주 신고가 경신
코리아에스이(101670) ▶1,790(상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MZ 도로연결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상한가

단기 유망종목: 파라다이스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권입가 (권입일자)	투자 포인트
파라다이스 (034230)	19,400 (+3.2)	18,800 (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인 VIP 드롭액 개선에 따른 성과 확대 본격화 전망 - 일본인뿐 아니라 동남아 등 기타 국적 신규 고객 발굴 효과로 수익 호전 예상 - 파라다이스시티 2차 시설 개장(엔터/레저 시설 확충)에 따른 실적 확대 전망
하나금융지주 (086790)	38,850 (-16.3)	46,400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자금 및 신용, 중소기업대출 증가에 힘입어 원화대출금의 지속적 증가 전망 - 대손율 0.07%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가운데 4분기 NIM 반등을 앞두고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전망 - 예측되는 규제에 상당부분 발표되었고 추가적으로 나올 가계 및 부동산 관련 대책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추가에 반영된 상황에서 연말로 갈수록 배당 매력 부각 전망
한솔케미칼 (014680)	79,400 (+3.1)	77,000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 제품인 과산화수소 제품가격 인상과 퀀텀닷(QD)소재 수요 강세가 지속되며 실적 개선 전망 - 2019년 초 추가 3만톤 capa 가동을 준비하고 있어 과산화수소 사업의 실적개선 지속 전망 -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과산화수소 시장에서의 지배력 확장 전망
에스원 (012750)	10,000 (+18.6)	84,300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 편의점 확대 시 업무 지능화 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점포당 관리 수익 상승에 따른 수혜 전망 - 현재 10개의 무인주차장을 2019년까지 50개로 확대 운영할 전망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탄력근무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 등 근무형태 다변화에 따라 근태관리 솔루션을 도입하는 업체 증가에 따른 수혜 전망
와이솔 (122990)	16,100 (-8.3)	17,550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통신 서비스의 개화로 기존 2GHz 이하에 이용했던 표면탄성필터(SAW)에 더해 고주파를 선별하는 벌크탄성파필터(BAW)가 추가되어 동사 필터 사업부문의 수혜 전망 - SK텔레콤의 IoT 전용망 모듈 납품자로 선정됨에 따라 커넥티드 수요 증가로 IoT모듈 사업부문의 수혜 및 모듈 신사업에서의 성장 기대
디지털대성 (068930)	4,590 (+1.9)	4,505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에서의 르네상스러닝 콘텐츠 독점 판매권 확보로 4분기부터 매출 본격화 전망 - 2012년 비상예유 인수 이후 현금성자산을 이용한 M&A를 통해 지속적인 실적 개선 기대 - 브랜드파워를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실적 성장으로 올해 최대 실적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입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 발행주식에 기타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롯데제과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8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롯데제과 (280360)	155,000 (+2.0)	152,000 (11/15)	1,737	85	45	1,077	1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성 위주 구조조정의 부작용이 순작용으로 전환되며 운전자본 감소 등 긍정적 효과 발생 - 해외 제과사 지분이 12월에 현물출자 되는 것으로 결정되며 성장성이 보장되며 지배구조 우려가 완화됨 - 병과와 건과의 펀더멘털 개선에 따른 성장세 지속 전망 							
멀티캠퍼스 (067280)	42,650 (+10.1)	38,750 (11/1)	241	19	15	2,625	1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그룹의 교육서비스 전문 기업 -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사업 총괄 운영으로 19년 이후 실적 성장을 높아질 것 - 기업들의 교육부문 위탁설계 확산 추세 및 영어말하기시험(OPIc)의 점유율 상승, 높은 배당성향도 긍정적 							
삼양패키징 (122990)	16,000 (-18.2)	19,550 (8/17)	356	40	25	1,765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단가 인상과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영업마진의 점진적 개선 전망 - 19년 1분기까지 기저효과가 지속되며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전망 - 연이은 고부가 제품 증설 및 가동에 따라 고속 성장기 진입 전망 							
현대백화점 (069960)	91,500 (-6.0)	97,300 (8/2)	1,880	406	287	12,705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품 소비 증가로 기존점 매출액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12월 천호점 그랜드 오픈 및 11월 무역센터점 면세점 오픈 등에 따라 이익 모멘텀 확대 전망 - 본업 호조와 신규 사업으로 이익 모멘텀을 확보하였지만 여전히 저평가 상태로 밸류에이션 매력 상존 							
신대양제지 (016590)	65,200 (-16.0)	77,600 (6/28)	688	103	76	18,962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65억원(+25.6% QoQ, +419% YoY)으로 전년 동기대비 5배가 넘는 이익 창출 예상 - 미국의 수출 지역인 중국과 동남 아시아 시장으로 한국 골판지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 상존 - 지배순이익이 peer그룹인 무림P&P(160억원) 대비 불과 5% 적지만 시가총액은 무림P&P의 절반에 불과한 염가 구간 							
포스코강판 (058430)	18,850 (-16.6)	22,600 (5/30)	944	25	23	3,757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연업체들의 가격 인상에 따른 스프레드 반등 예상 - 생산라인 증설에 따라 3분기부터 컬러강판 생산능력 증가 전망 - 냉연 스프레드 사이클의 저점으로 판단되며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삼양패키징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한국시장 주요 지표

한국	11/22(목)	등락률(%)			
주요지수	종가	1D	1W	1M	YTD
KOSPI	2,069.95	(0.32)	(0.87)	(4.24)	(16.11)
KOSPI200	267.76	(0.19)	(1.39)	(4.17)	(17.55)
대형주	1,990.83	(0.25)	(1.50)	(4.60)	(17.70)
중형주	2,427.57	(0.64)	2.26	(1.84)	(11.25)
소형주	1,900.99	(0.50)	1.82	(4.63)	(6.52)
KOSDAQ	692.39	(0.48)	1.62	(6.96)	(13.28)
KOSDAQ150	1,182.87	(0.28)	2.31	(7.88)	(16.33)

수급	11/22(목)	1D	1W	1M	YTD
거래량	KOSPI	232	265	340	396
(백만 주, 기간 평균)	KOSDAQ	506	543	593	814
거래대금	KOSPI	3,894	4,606	5,511	6,617
(십억 원, 기간 평균)	KOSDAQ	2,983	3,202	3,279	5,112

(단위: %, bp)

금리	11/22(목)	1D	1W	1M	YTD
국고채 3년물	1.95	0.70	2.50	(3.50)	(18.70)
국고채 5년물	2.05	0.30	0.80	(8.50)	(29.70)
국고채 10년물	2.21	0.50	1.30	(11.20)	(25.70)
회사채 3년(AAA-)	2.42	0.00	1.30	0.30	(12.20)
회사채 3년(BBB-)	8.39	0.00	1.30	(1.70)	(39.90)

(단위: 원, %)

외환	11/22(목)	1D	1W	1M	YTD
원/달러	1129.1	0.17	0.00	(0.04)	(5.47)
원/100엔	1000.3	(0.12)	(0.71)	0.22	(5.34)
원/유로	1286.5	0.01	(0.47)	1.01	(0.81)
원/위안	162.9	0.22	(0.09)	(0.11)	0.70

업종 지수	11/22(목)	1D	1W	1M	YTD
KRX 업종 지수					
자동차	1,195.67	(5.04)	(6.74)	(11.26)	(31.29)
반도체	1,897.93	(0.58)	(4.12)	(8.33)	(31.82)
헬스케어	3,514.94	(0.47)	4.57	(7.57)	(8.59)
은행	794.70	0.23	0.08	(6.44)	(15.17)
에너지화학	2,309.20	(0.17)	0.94	(2.81)	(16.46)
철강	1,500.54	(1.10)	0.51	(2.47)	(26.91)
방송통신	1,032.87	0.40	3.34	(5.40)	0.62
건설	614.48	(1.37)	1.31	(3.28)	9.56
증권	614.34	(0.44)	(1.44)	2.32	(13.78)
기계장비	552.97	(1.06)	3.76	0.01	3.32
보험	1,646.90	(0.47)	(0.56)	(1.06)	(14.94)
운송	565.37	(1.84)	1.57	5.31	(2.68)
유틸리티	1,129.45	(0.14)	1.37	(3.33)	(4.09)

업종 지수	11/22(목)	1D	1W	1M	YTD
KOSDAQ150					
기술주	1,400.25	(0.45)	3.28	(7.11)	(18.37)
소재	1,361.52	(0.94)	(3.51)	(11.17)	(13.30)
산업재	222.78	(0.60)	(0.85)	(8.45)	(28.79)
필수소비재	696.22	0.39	4.30	(9.38)	(31.86)
자유소비재	1,255.34	0.42	(0.03)	(8.96)	7.37
정보기술	505.92	(1.29)	(2.89)	(10.60)	(33.32)
생명기술	4,013.80	0.09	7.27	(5.31)	(14.80)
문화기술	2,444.60	(1.48)	(2.75)	(7.44)	9.33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국가, 지자체)	기 타	
유 가 증 권	매수	2,029	1,011	929	199	63	136	114	6	176	235	33
	매도	1,887	1,055	1,030	183	92	159	149	10	188	249	31
	순매수	142	(44)	(100)	17	(28)	(23)	(36)	(4)	(12)	(14)	2
	2018년 11월 누계	467	(224)	(547)	(630)	(87)	91	(115)	1	279	(89)	305
	2018년 누계	9,117	(6,281)	(4,394)	(1,179)	(1,118)	460	(1,038)	(327)	(165)	(1,027)	1,557
코 시 닥	매수	2,556	262	163	36	12	31	46	1	12	25	17
	매도	2,489	298	189	56	8	32	53	3	16	21	22
	순매수	66	(36)	(26)	(20)	4	(1)	(8)	(1)	(3)	4	(4)
	2018년 11월 누계	1,270	(151)	(1,131)	(587)	13	(76)	(138)	2	(275)	(69)	12
	2018년 누계	4,170	(994)	(1,011)	650	98	148	(1,286)	(147)	(527)	53	(2,165)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반도체	452	자동차	(1,402)	반도체	259	호텔,레저서비스	(276)
	화장품,의류,완구	397	상사,자본재	(397)	소매(유통)	124	화장품,의류,완구	(237)
	호텔,레저서비스	235	건설,건축관련	(244)	건설,건축관련	76	보험	(137)
	통신서비스	211	철강	(181)	자동차	73	건강관리	(107)
	필수소비재	169	운송	(125)	조선	61	필수소비재	(80)
종목	KODEX 200	446	현대차	(562)	SK하이닉스	271	KODEX 200	(441)
	삼성전자	288	현대모비스	(541)	현대모비스	96	호텔신라	(213)
	아모레퍼시픽	239	삼성물산	(350)	휠라코리아	85	아모레퍼시픽	(135)
	삼성전기	129	GS건설	(191)	GS건설	71	TIGER 200	(123)
	KT&G	129	POSCO	(123)	롯데케미칼	56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76)
	TIGER 200	123	삼성생명	(123)	대림산업	50	동성제약	(69)
	SK하이닉스	123	기아차	(96)	현대차	49	아모레G	(67)
	아모레G	92	만도	(83)	POSCO	47	한진칼	(66)
	LG유플러스	89	한미약품	(63)	유한양행	44	LG유플러스	(64)
	SK텔레콤	83	휠라코리아	(63)	넷마블	39	신한지주	(63)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조선	54	건강관리	(148)	조선	34	IT하드웨어	(86)
	IT하드웨어	51	미디어,교육	(66)	화학	19	반도체	(65)
	반도체	15	비철,목재등	(49)	미디어,교육	16	소프트웨어	(62)
	필수소비재	8	디스플레이	(48)	필수소비재	13	자동차	(46)
	소프트웨어	5	화학	(19)	호텔,레저서비스	12	건설,건축관련	(45)
종목	에이치엘비	51	싸이토젠	(94)	셀트리온헬스케어	91	원익IPS	(33)
	이오텍	30	디알젬	(52)	메디톡스	49	포스코케미칼	(25)
	휴젤	25	포스코케미칼	(48)	에이치엘비	39	차바이오텍	(19)
	모두투어	25	셀트리온헬스케어	(44)	SKC코오롱PI	23	오스코텍	(16)
	케어젠	19	와이지엔터테인먼트	(32)	파맵신	21	CSA 코스믹	(15)
	인트론바이오	18	파맵신	(30)	코오롱생명과학	20	셀바이오텍	(15)
	울릭스	18	더블유게임즈	(27)	CJ ENM	16	이오텍	(14)
	카페24	16	서울반도체	(25)	네이처셀	16	인터로조	(13)
	아미코젠	15	에코프로	(21)	JYP Ent.	15	프로스테믹스	(13)
	한스바이오메드	15	파라다이스	(21)	필터비스	14	네오위즈	(13)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락률

KOSPI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삼성전자	272,500	42,450	0.83	(16.70)
SK하이닉스	50,451	69,300	1.76	(9.41)
셀트리온	27,977	223,000	(0.89)	0.86
LG화학	23,860	338,000	(0.73)	(16.54)
SK텔레콤	23,134	286,500	2.32	7.30
POSCO	22,145	254,000	(0.20)	(23.61)
삼성바이오로직스	22,132	334,500	0.00	(9.84)
신한지주	20,272	42,750	0.00	(13.46)
현대차	19,828	92,800	(5.11)	(40.51)
KB금융	19,609	46,900	0.75	(26.03)

KOSDAQ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셀트리온헬스케어	11,242	80,000	0.13	(26.34)
신라젠	4,999	71,600	(0.56)	(23.42)
CJ ENM	4,719	215,200	0.56	(6.84)
포스코케미칼	4,318	73,100	(2.40)	83.67
에이치엘비	3,461	88,500	2.67	128.98
메디톡스	3,275	579,000	2.12	19.41
바이로메드	3,110	194,900	1.99	19.35
스튜디오드래곤	2,964	105,700	0.86	62.62
코오롱티슈진	2,625	43,050	(2.16)	(16.89)
필터비스	2,370	183,100	(0.92)	(26.05)

Global Asset Monitor

글로벌 주식		(단위: %)				
구분	지역/국가	종가	1D	1W	1M	YTD
지역	MSCI 세계	477.68	0.38	(1.89)	(3.06)	(6.89)
	MSCI 선진국	1,984.73	0.40	(2.05)	(3.35)	(5.64)
	MSCI 신흥국	975.04	0.25	(0.59)	(0.80)	(15.83)
DM	S&P500	2,649.93	0.30	(1.91)	(3.84)	(0.89)
	Dow Jones	24,464.69	(0.00)	(2.46)	(3.37)	(1.03)
	Nasdaq	6,972.25	0.92	(2.30)	(6.65)	1.00
	Russell 2000	1,488.28	1.31	(0.95)	(3.33)	(3.08)
	영국 FTSE 100	7,011.51	(0.55)	(0.38)	(0.44)	(8.80)
	프랑스 CAC	4,955.42	(0.40)	(1.55)	(1.94)	(6.72)
	독일 DAX 30	11,209.68	(0.31)	(1.27)	(2.73)	(13.22)
	스페인 IBEX	8,899.20	(0.69)	(1.92)	1.05	(11.40)
	일본 니케이	21,646.55	0.65	(0.72)	(4.28)	(4.91)
	홍콩 항셱	26,019.41	0.18	(0.32)	(0.51)	(13.03)
EM	코스피	2,069.95	(0.32)	(0.87)	(4.24)	(16.11)
	코스닥	692.39	(0.48)	1.62	(6.96)	(13.28)
	중국 상해종합	2,645.43	(0.23)	(0.85)	(0.36)	(20.01)
	홍콩 H지수	10,446.43	(0.38)	(1.03)	(0.42)	(10.79)
	인도 Sensex	35,141.94	(0.16)	(0.34)	2.95	3.19
	베트남 VN	924.42	0.20	3.04	(3.05)	(6.08)
	인도네시아 JCI	5,987.63	0.67	2.21	2.52	(5.79)
	러시아 RTS	1,128.19	0.07	(0.26)	1.04	(2.27)
	브라질 Bovespa	87,268.80	(0.72)	2.04	1.95	14.22
	멕시코 Mexbol	41,499.93	(0.71)	(2.17)	(11.63)	(15.91)
글로벌 업종	에너지	161.71	(0.17)	(0.92)	(6.40)	(7.31)
	소재	178.96	(0.37)	(1.77)	(2.65)	(17.07)
	산업재	244.57	(0.13)	(1.79)	(2.46)	(16.31)
	경기소비재	230.70	0.17	(1.57)	(0.88)	(13.02)
	필수소비재	288.69	0.09	(1.11)	(1.76)	(3.63)
	헬스케어	566.67	0.06	(2.13)	(2.64)	7.29
	금융	161.43	(0.21)	(1.03)	(0.02)	(11.32)
	IT	359.39	0.06	(4.79)	(8.55)	(1.10)
	통신서비스	162.38	(0.18)	(0.53)	(1.91)	(8.35)
	유틸리티	164.39	(0.22)	(0.27)	0.15	(3.68)

글로벌 환율		(단위: %)				
구분	지수/국가	종가	1D	1W	1M	YTD
지수	달러 인덱스	96.61	(0.10)	(0.32)	0.62	4.87
	무역가중 달러 인덱스	128.02	(0.36)	(0.49)	1.68	7.54
미주	브라질	3.80	(1.06)	(0.30)	(2.94)	(12.77)
	멕시코	20.29	(0.18)	(0.27)	(4.34)	(3.09)
아시아	한국	1,129.13	0.17	0.00	(0.04)	(5.47)
	일본	112.96	0.09	0.60	(0.12)	(0.24)
	중국	6.94	(0.13)	0.05	0.17	(6.19)
	대만	1.38	0.33	0.53	(2.17)	7.85
	인도	71.05	0.59	1.32	3.55	(10.10)
유럽	유로존	1.14	0.12	0.62	(0.58)	(5.06)
	영국	1.28	(0.01)	0.02	(1.43)	(5.45)
	러시아	65.62	0.18	0.37	(0.64)	(12.09)

주: 달러 대비

글로벌 채권		(단위: bp)				
지역	국가	종가	1D	1W	1M	YTD
미주	미국	3.06	0.00	(4.76)	(13.51)	65.73
	캐나다	2.36	1.00	(7.50)	(14.10)	31.40
	브라질(USD)	10.06	(7.10)	(34.40)	(26.70)	(19.70)
유럽	멕시코	9.05	(1.40)	2.80	69.70	139.20
	독일	0.36	(1.80)	(0.20)	(9.00)	(6.90)
	영국	1.37	(2.30)	0.00	(15.40)	18.30
	프랑스	0.75	(1.20)	0.30	(6.70)	(3.10)
	이탈리아	3.53	5.80	3.60	3.90	151.30
아시아	러시아	5.21	(2.70)	2.60	14.80	134.30
	한국	2.21	0.50	1.30	(11.20)	(25.70)
	일본	0.10	0.50	(0.90)	(5.40)	5.20
	중국	3.40	0.90	(1.60)	(20.70)	(50.60)
	호주	2.66	(2.50)	(5.10)	(3.90)	3.40
	인도	7.74	(5.50)	(7.90)	(19.20)	41.10

원자재		(단위: %, USD/oz, bu, MT)				
구분	지수/상품	종가	1D	1W	1M	YTD
지수	S&P 원자재 지수	422.13	0.90	(2.47)	(11.19)	(4.59)
	LMEX 지수	2,923.60	0.73	0.83	(1.87)	(14.49)
	CRB 지수	415.17	0.23	(0.25)	(0.92)	(3.97)
에너지	원유(WTI)	54.36	(0.49)	(3.72)	(21.41)	(10.03)
	원유(Brent)	63.15	(0.52)	(5.21)	(20.89)	(5.56)
	천연가스	4.32	(2.88)	7.06	37.76	46.39
금속	금	1,228.10	0.01	1.08	0.57	(6.20)
	은	14.48	(0.15)	1.52	(0.73)	(15.54)
	구리	6,235.00	0.82	2.38	0.24	(13.96)
	아연	2,568.00	0.67	2.64	(2.21)	(22.63)
	알루미늄	1,953.50	0.70	0.54	(2.47)	(13.87)
농산물	S&P 농산물 지수	287.68	0.21	(0.84)	(1.03)	1.96
	옥수수	372.75	0.13	(1.39)	(1.78)	(5.21)
	밀	506.75	(0.34)	(1.03)	(5.15)	2.74
	대두	883.00	0.23	(0.06)	1.44	(10.17)

변동성		(단위: %)				
구분	지수	종가	1D	1W	1M	YTD
미국	VIX	20.80	(7.47)	(2.12)	5.91	88.41
유럽	VSTOXX	18.51	1.47	(8.16)	(4.39)	36.98
한국	VKOSPI	18.41	(2.64)	0.49	13.36	52.65

한 눈에 보는 매크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2	13	14	15	16
韓> 실적발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日> 10월 PPI YoY (2.9%, 2.8%, 3.0%)	유럽> 11월 ZEW 서베이 예상 (-22.0, n/a, -19.4)	韓> 실적발표: 삼성화재, 휴온스, 메디톡스, 삼성증권 美> 실적발표: Cisco 10월 CPI MoM (0.3%, 0.3%, 0.1%) 中> 10월 광공업생산 YoY (5.9%, 5.8%, 5.8%) 日> 3Q GDP SA QoQ (-0.3%, -0.3%, 0.7%) 9월 3차 산업지수 MoM (-1.1%, -0.4%, 0.4%) 유럽> 3Q GDP SA YoY (0.2%, 0.2%, 0.2%)	韓> 실적발표: 키움증권 대학수학능력시험 美> 실적발표: Walmart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16, 213, 214) 10월 소매판매 추정 MoM (0.8%, 0.5%, -0.1%)	韓> 실적발표: 솔브레인 美> 실적발표: Nvidia 10월 광공업생산 MoM (0.1%, 0.2%, 0.2%) 유럽> 10월 CPI YoY (2.2%, 2.2%, 2.1%)
19	20	21	22	23
	美> 실적발표: Gap, HP 10월 주택착공건수(천건) (1228, 1228, 1210)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0.1%, n/a, -3.2%) 10월 내구재주문 (-4.4%, -2.8%, 0.7%) 日> 9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MoM (-0.9%, -0.9%, 0.4%)	美> 휴장(Thanksgiving)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24, 215, 216) 10월 선행지수 (0.1%, 0.1%, 0.5%) 10월 기존주택매매(백만건) (5.22, 5.20, 5.15) 11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97.5, 98.3, 98.6) 유럽> 11월 소비자자기대지수 (n/a, -3.0, -2.7) 日> 10월 전국 CPI YoY (1.4%, 1.4%, 1.2%)	美> 11월 마켓 제조업 PMI (n/a, 55.7, 55.7) 유럽> 11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n/a, 52.0, 52.0)
26	27	28	29	30
	美> 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지대 (n/a, 136.0, 137.9)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0.1%) 10월 도매재고 MoM (n/a, 0.5%, 0.4%) 10월 신규주택매매(천건) (n/a, 582, 553) 3Q GDP 연간화 QoQ (n/a, 3.6%, 3.5%) 유럽> 10월 M3 통화공급 MoM (n/a, n/a, 3.5%)	美> FOMC 회의록 공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10월 개인소득 (n/a, 0.4%, 0.2%) 유럽> 11월 소비자자기대지수 (n/a, n/a, n/a)	韓> 금융통화위원회 (n/a, n/a, 1.50%) 中> 11월 제조업 PMI (n/a, n/a, 50.2) 日> 10월 유효구인배율 (n/a, 1.65, 1.64) 10월 실업률 (n/a, 2.3%, 2.3%) 10월 광공업생산 MoM (n/a, 1.2%, -0.4%)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